

『 서해안시대 해양관광의 중심지, 부안 』

지리교육과 3학년 이나래

1. 위치

| 단 | 극점 | | | 연장거리 |
|-----|------------|--------------|-------------|-----------------------------|
| | 지명 | 동경 | 북위 | |
| 동 단 | 백산면 대수리 월평 | 126° 15' 18" | 35° 41' 42" | 동서거리 60.7km ² |
| 서 단 | 위도면 상왕등도 | 126° 05' 59" | 35° 39' 28" | |
| 남 단 | 줄포면 우포리 | 126° 39' 59" | 35° 33' 58" | 남북거리 26.2km ² |
| 북 단 | 계화면 계화리 | 126° 37' 41" | 35° 47' 35" | |

〈 부안군 수리적 위치 〉

출처: 부안군청

부안은 전라북도 남서쪽 변산반도에 위치하여 서쪽이 황해에 면해 있는 군으로 동쪽은 정읍시와 북쪽은 동진강하구를 경계로 김제시와 남쪽은 곰소만을 경계로 고창군과 인접한다. 서쪽은 황해로 위도면에 속하는 위도, 식도, 정금도, 거륵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등의 섬이 있다.



〈 부안군의 위치 〉

출처: 한국관광공사

부안은 김제와 군산 등 3개 시·군과 연계하여 새만금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지역 특화 방안은 연근해 도서와 내항 주변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해양문화도시관광'이 적합하다 분석되었고, 김제는 농촌과 산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통문화체험관광', 부안은 영상산업과 어촌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복합관광'이 제안된 상태이다. 수려한 경관의 걸출한 명승지가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휴가철에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며,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¹⁾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한층 향상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전북의 대표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1)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 목포시를 잇는 고속도로로 길이 341km이며 경부고속도로(416km)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고속도로이다. 인천국제공항 및 국제해양관광단지, 태안반도, 변산반도, 다도해 등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연결되어 있어, 관광명소들 간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읽을거리

부안의 변화된 브랜드 슬로건



〈부안 브랜드 슬로건〉

출처: 부안군청

부안 슬로건과 캐릭터 변화로 지역이미지 새로워졌다. 부안군은 새로운 출발이자 희망의 표현이 함축된 이미지로 변환하고 그 슬로건을 "바람의 도시 부안"으로 바꿨다. 신규 이미지 컨셉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도시와 인간적인 생활문화도시, 친환경적 산업발전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등 4대 핵심 목표로 정하고 여기에 따른 정책목표를 희망의 바람, 변혁의 바람, 자연의 바람, 향기의 바람, 신 바람 등 5개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바람은 희망의 뜻을 가진 바람과 WIND뜻을 가진 바람(風)으로 상징했으며 영문은 "Baram Buan"으로 표기했다. 또 문화관광의 기본구상을 Eco Tourism, Culture Tourism, Health Tourism, Festival Tourism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체험형 관광마을 조성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2. 인문·자연환경

1) 자연환경

변산반도로 대표되는 부안은 내륙으로 김제, 정읍, 고창과 경계를 이루며 바다 쪽으로는 돌출된 반도형태를 이루어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형성하고 있다. 부안의 지형은 김제와 태인 쪽으로 뻗어지는 읍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구릉지와 평야지대, 여기에 남북방향으로 고부천이, 남동-북서 방향으로 동진강이 군내를 흐른 뒤 백산면 금관리에서 합쳐져 서해로 유입한다.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내달아있는 군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산지가 있다. 변산은 바로 이 산지에 있는 산을 일컫는 말이다.

부안군의 변산반도 동북쪽은 기반암이 심층 풍화되어 적황색토로, 고부천과 동진강 하부 주변의 충적평야는 회색토와 충적토로 덮여 있다. 기후는 연평균기온 12.2℃ 내외, 1월평균기온 -0.5℃ 내외, 8월평균기온 26.7℃ 내외, 연평균강수량 838.5mm 정도이다.

2) 인문환경

| 기간 | 1975~85년 | 1985~95년 | 1995~05년 |
|------|-----------|-----------|-----------|
| 감소인구 | 4만 1,581명 | 2만 9,923명 | 1만 9,116명 |
| 감소율 | 약 27% | 약 26.1% | 약 22.65% |

〈 부안군 인구감소추세 〉

출처: 부안군청

부안군의 면적은 493.35km²로 전국의 0.49%, 전라북도의 6.1%이다. 부안군의 인구는 6만499명으로(2009년) 작년 말보다 373명 줄어들었다. 부안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에 속한 인구전출지역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인구감소율은 줄어들고 있다.

부안군은 전통적인 벼농사지대이며, 남부는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취락의 발달이 미약하다. 따라서 평야지대의 가옥을 중심으로 들판 가운데 취락이 소규모로 흩어져 중앙에 입지하고 있는 괴촌형의 취락이 많다. 부안읍은 도로를 따라 가촌(街村)의 형태로 발달했다. 서부 평야지대의 일부에는 산촌(散村)도 나타난다. 한편 계화도간척지구의 촌락형태는 매우 특이하다.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기존의 간척지 촌락과 같이 수로를 따라 나타나는 열촌 형태가 아니라 간척지를 에워싸고 있는 둔지(頓池)·창북(昌北)·계화(界火) 등 기존취락에 도시형의 집단거주지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서해안과 위도면에는 줄포·곰소·격포·계화·해창·대리 등의 어촌이 발달해 있다. 이들 어촌들은 조선시대 이후 조기잡이와 도미·새우·조개 등의 어획으로 발달했으나 조기의 감소와 근해에 토사가 밀려와 수심이 얕아지고 계화도간척지가 조성되면서 어업은 쇠퇴했다. 조선시대 전라북도 제2의 항구였던 곰소만의 줄포항은 완전히 쇠퇴했으며, 다만 서해안에 면한 격포항만이 항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3. 부안군의 산업경제

계화도를 중심으로 한 미작농업이 부안군의 기반산업이 되고 있으며, 서해안 어촌의 어업과 변산반도의 빼어난 경관을 중심으로 발달한 관광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총 경지면적 208.55km² 가운데 논이 148.45km², 밭이 60.1km²로 논·밭의 비율이 71 : 29이다. 따라서 미곡생산이 전체 농산물생산의 86% 정도를 차지하는 논농사 중심지역이다. 약 48.80km²의 계화도간척지의 농경지는 섬진강 다목적 댐의 건설로 동진강으로 끌어들인 섬진강의 물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벼농사 외에 변산면·상서면·보



〈 계화 간척지의 농경지 〉

출처: 네이버 이미지

안면 등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양잠²⁾이 행해지며, 연초 및 약초 재배도 이루어진다. 위도를 중심으로 한 조기잡이가 쇠퇴하여 어업이 침체되었다. 최근에는 새우·민어·갈치 등을 어획하고 있다. 곰소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이용하여 젓갈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내수면 개발로 뱀장어 양식도 하고 있다. 군의 최대 상업지역은 부안읍이며, 상권은 정읍시장권에 속하여 그 세력이 미약하다. 그러나 부

안읍을 중심으로 쌀·채소류·청과류 등이 거래되며, 서해안에서 어획한 수산물도 취급된다.

4. 변산반도

전라북도의 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전진·후퇴하는 해안선에 접한, 연해에서 육지에 걸친 지대이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내륙 쪽에 해안 사구(海岸砂丘)와 해안 평야가 있고, 바다 쪽에는 간척지가 있다.

해안선은 암석해안(巖石海岸)과 사질해안(砂質海岸)³⁾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와 구릉이 해안에 근접하여 침식된 절벽이 많은 변산 반도와 진봉 반도 안의 일부가 암석해안으로, 그 대표적인 곳이 격포의 채석강이며, 유입하천(流入河川)에 의해서 운반되거나 침식에 의해서 사력(砂礫)⁴⁾이 바다의 작용으로 이동되어 퇴적한 것이 사질 해안인데, 그 대표적인 곳은 변산 해수욕장, 격포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 등이다.

간척지의 세립질 모래가 주로 겨울철의 북서 계절풍에 의해서 육지 쪽에 이동되어 해안선에 평행하게 퇴적된 것이 해안 사구인데, 특히 고창군 해리면과 상하면 해안에 잘 발달해 있다. 황해안은 간만의 차가 매우 커서 주요 하천의 하구에 삼각주 대신 간척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2) 누에를 사육(飼育)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일

3) 사빈(砂濱)해안이라고도 한다. 암석해안과 대응하는 말

4) 자갈

5. 동북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의 발돋움

전국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선도 모델이 될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부안에 들어선다. 지난 2004년 산자부 사업계획 발표 이래 타당성 검증, 실증단지 참여기관 선정, 설계 등 산고 끝에 사업시작 5년 만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2010년까지 1,194억원이 투입돼 실증연구단지, 테마체험단지, 산업단지 등 건물 8동을 포함한 356천㎡(11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감도 〉

출처: 전북도청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전북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이라는 점을 선포하는 시발점이자, 새만금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연구용지, 경자구역 풍력 클러스터, 군산-익산-완주를 잇는 솔라벨트(Solar belt)는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허브구축의 기반시설로 그 조성 기대효과가 높다. 이를 통해 대기업 및 중핵기업 100개 수출기업 집적 등 50조 이상 부가가치 및 12만 명 이상 고용 창출 등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화 및 선순환 사이클을 구현하고자 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 지형학 / 2003 / 권혁재 / 법문사
- 지형의 이해 / 2000 / 김남신

〈 참고사이트 〉

- 부안군청 <http://www.buan.go.kr/>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daum.net/choogal/16512836>
-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duke9470/17188722>
- 브리टे니커 부안군 <http://timeline.britannica.co.kr/>

계화 간척지

★ 우리는 왜 이곳에 왔을까?

계화 간척지에서는 간척사업의 경제적 효과, 해안선의 변경 등에 따른 국익 신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간척지의 토지이용에 관해 직접 답사 후 느껴보고, 반대로 간척사업으로 인한 손실과 파괴되는 생태계 등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의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을까?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

• 한국지리

- 1단원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인식
 - ① 전통적인 국토 인식의 틀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생태 공간으로서의 국토의 의미를 파악한다.
- 2단원 지형환경과 생태계
 - ③ 해안 지형의 형성 작용을 파악하고, 인위적으로 해안 지형을 변형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한다.
- 3단원 변화하는 기후환경
 - ④ 기후, 토양, 식생을 중심으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잘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 어디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 전북 군산~부안 새만금 간척지
- 안산 시화호 간척지
- 네덜란드 세계 최초의 간척지 뵘스터(Beemster) 간척지
- 네덜란드 세계 최대의 간척지 플레볼란트